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준비

김혜영*, 박소연**, 이숙정*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중앙심리교육연구소
e-mail:hyeyoung@sm.ac.kr

The Impact of the Corona Crisis on the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Preparation of University

Hye-young Kim*, So-yeon Park*, Sook-Jeong Lee*
*Dept.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entral Institute of Psychological Education

요약

코로나는 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지속 될 비대면 중심의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측정된 재학생들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확인하면,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상황판단력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가 지속여부와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적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서론

많은 대학들이 핵심역량을 교육을 통해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역량을 교육목표에 포함시키고 교과단위에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S여자대학교도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육적 노력을 비교적 일찍 2010년에 시작하였다. 대학의 핵심역량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직접 배우고 함양시키기 위한 교과를 교양필수 교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역량을 교과명에 반영한 교과도 있었고, 현재도 운영 중인 교과들도 있다. 이렇게 역량을 직접 언급하고 강화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의 방법 등이 해당 역량을 위한 교과임을 강조하면서 역량교육을 다년간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대학교육에서의 많은 변화를 만들면서 재학생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S여자대학교의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2. S여자대학교의 핵심역량 관리

대학은 재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도구나 설문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대학이 자체의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실제 재학생들의 역량의 수준이나 강화 정도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정 대학이 제공하는 진단에 매년 재학생들을 선정하여 측정 받을 수 있도록 한 뒤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학 간 비교나 지역 단위 간의 구분이 가능하고 대학의 년차별 역량 수준이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진단도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소속단위별로 또는 대학 전체에서 진단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다.

S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자체개발한 역량진단도구를 통해 매년 재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활용된 S여자대학교의 역량진단도구는 ‘분석적사고, 비판적사고, 창의적사고, 문제해결적 사고, 책임감, 관계구축, 의사소통, 다문화감수성, 시민윤리, 친화력, 전략기획, 조직이해’ 등의 다양한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

3. 코로나와 대학의 역량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질문을 주고받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팀 과제를 모여서 하던 대학의 모습은 지난 1년간 잊혀졌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이나 과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급격히 발달되어 오히려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거나 특정 상황에 접하면서 향상되는 역량 등은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에 없던 우리의 삶을 창출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시민성의 덕목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의 규모, 회수 등 모든 것에 제약 받았다. 대학의 수업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교수들은 대면강의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에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업을 확장하였으나, 온라인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지식전달 이외의 친밀감과 관련된 소통과 공감자체가 어려워졌다. 주로 정보제공 위주의 진행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대면수업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도 사라진 것이다. 그런 교과운영의 상황에서는 질문이나 토론 등은 더욱 어색해졌고 더욱 부담이 되는 일이 되었다. 실제 교양수업영역별 수업철학 설문 결과 결과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 수업목표의 달성도, 수업방법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적절성이 평균 2.5점에서 3.0점(보통수준)으로 기대 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별활동,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대면수업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였다(홍성연 2020).

4. 연구자료와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대학교육에서의 많은 변화를 만들면서 재학생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S여자대학교의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척도는 핵심역량 하위에서 활용되는 세부역량으로써 인지영역에서의 7개 역량, 사회영역에서의 12개 역량, 조직영역에서의 10개 역량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SPSS ver.25를 통해 분석하였다¹⁵⁾.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영역별 역량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인학생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량비교를 위해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표집하였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

는 2019년은 278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219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S여자대학교는 교양필수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역량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한 학생들만 2~3명씩 대형 PC실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착석하여 진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단의 시점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되고 약간 안정을 찾아가던 10월~11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영에 따라 2020년의 자료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19년 전체 데이터 중에 2020년 진단 시기와 비슷하게 진행된 진단(학기 후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학년별, 단과대 학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의 학년별 분포

	2019년		2020년	
	명	%	명	%
1학년	251	90.3	195	89.0
2학년	25	9.0	13	5.9
3학년	2	.7	10	4.6
4학년	0	0	1	.5
	278	100.0	219	100.0

코로나 전후의 역량변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과 2019년 자료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영역의 경우 친밀감형성($t=-3.262, p<.01$), 사회적 지원제공($t=-1.999, p<.05$)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며, 자발적 역할탐색·인식($t=2.737, p<.01$), 적극적 역할수행($t=3.295, p<.01$) 척도에서 전년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친밀감형성 척도 점수의 하락은 코로나로 인해 대외적인 관계가 대폭 축소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친밀감 형성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역할탐색과 인식의 부분은 필수로 진단을 해야 하던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선택형 진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높은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이 진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는 자세한 해석과 적용방향 탐색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은 t 코로나 전후의 사회영역 척도별 역량의 차이이다.

15) S여자대학교가 자체개발한 역량진단도구에서는 인지영역 내에 언어유추, 수추리, 판단력, 자료추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사회영역에 친밀감형성, 사회적 지원 제공, 지속적 관계유지,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호기심, 이문화경험추구, 자발적 역할탐색과 인식, 적극적 역할수행, 공동목표에 대한 몰입, 적극적 경청, 친화적 의사소통, 설득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였다. 조직영역에서는 시민윤리, 친화력, 영향력, 도전성취, 자기전문, 조직이해, 전략기획, 변화주도, 글로벌파워 역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사회영역의 2019년과 2020년 차이 분석

척도	t	p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친밀감 형성	-3.262	.001	2019년	278	51.55	2.69
			2020년	219	52.36	2.64
사회적 지원 제공	-1.999	.046	2019년	278	51.89	2.41
			2020년	219	52.87	2.27
지속적 관계유지	-1.677	.094	2019년	278	50.03	2.59
			2020년	219	50.89	2.81
문화적 수용성	-1.253	.211	2019년	278	49.31	2.35
			2020년	219	50.81	2.20
문화적 호기심	.960	.338	2019년	278	51.80	2.87
			2020년	219	53.68	2.91
이문화경험추구	1.045	.297	2019년	278	52.72	2.64
			2020년	219	54.18	2.78
자발적 역할담색 인식	2.737	.006	2019년	278	51.96	2.30
			2020년	219	54.49	2.33
적극적 역할수행	3.295	.001	2019년	278	49.42	2.57
			2020년	219	51.15	2.72
공동 목표에 대한 몰입	.006	.995	2019년	278	51.79	2.09
			2020년	219	54.25	1.97
적극적 경청	-.207	.836	2019년	278	51.23	2.09
			2020년	219	51.28	2.03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545	.586	2019년	278	55.12	2.73
			2020년	219	54.87	3.03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1.082	.280	2019년	278	44.00	2.26
			2020년	219	46.23	2.82

조직영역의 경우 자기전문(t=2.748, $p<.01$), 전략기획(t=3.160, $p<.01$), 변화주도(t=2.225, $p<.05$), 위기관리(t=3.424, $p<.01$) 4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년도 대비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선택 측정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나 위기관리역량은 코로나 상황이기에 향상이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향후 필요하다.

인지영역은 수추리(t=2.351, $p<.05$), 창의적 사고(t=3.543, $p<.001$), 문제해결력(t=2.423, $p<.05$)에서 전년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상황판단력(t=-2.063, $p<.05$) 척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데, 상황판단력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 형태로 개발된 척도이다. 그런데 대학생의 일상생활로 정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0년은 대학 생활 뿐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볼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진단의 대상이 되는 1학년의 경우 이 부분을 강화시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간과하기 어렵다.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 자치활동 등의 대학생활 전반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조직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볼 기회가 부재했고 상황에 도출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S여자대

학교는 일반대학으로써 사이버형태로 진행되는 원격대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한 학기, 1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학도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조직영역의 차이분석

	t	p	시기	N	평균	표준 편차
시민윤리	1.128	.260	2019년	278	51.55	8.14
			2020년	219	52.36	7.78
친화력	1.131	.258	2019년	278	51.89	9.17
			2020년	219	52.87	10.10
영향력	.947	.344	2019년	278	50.03	8.85
			2020년	219	50.89	10.92
도전성취	1.818	.070	2019년	278	49.31	9.13
			2020년	219	50.81	9.14
자기전문	2.748	.006	2019년	278	51.80	7.28
			2020년	219	53.68	7.88
조직이해	1.709	.088	2019년	278	52.72	9.54
			2020년	219	54.18	9.38
전략기획	3.160	.002	2019년	278	51.96	8.92
			2020년	219	54.49	8.80
변화주도	2.225	.027	2019년	278	49.42	8.50
			2020년	219	51.15	8.73
위기관리	3.424	.001	2019년	278	51.79	7.91
			2020년	219	54.25	8.01
글로벌과외	.064	.949	2019년	278	51.23	7.45
			2020년	219	51.28	8.06

[표 4] 인지영역의 차이분석

	t	p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언어유추	-.284	.776	2019년	278	55.12	9.77
			2020년	219	54.87	9.80
수추리	2.351	.019	2019년	278	44.00	10.23
			2020년	219	46.23	10.81
판단력	-1.619	.106	2019년	277	48.60	10.19
			2020년	219	47.11	10.22
자료추론	.684	.494	2019년	278	51.11	10.57
			2020년	219	51.75	10.11
창의적사고	3.543	.000	2019년	278	54.73	8.40
			2020년	219	57.44	8.54
문제해결력	2.423	.016	2019년	277	48.47	10.59
			2020년	219	50.68	9.28
상황판단력	-2.063	.040	2019년	278	45.90	10.05
			2020년	219	44.02	10.09

5.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략

S여자대학교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강의방법 등을 대폭 변화시켰다.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2020년 1학기, 2학기, 모든 계절 학기에서 소규모 실습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과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활동이나 학생자치 활동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S여자대학교의 경우 온라인기반이 잘 구축되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화 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생활과 학업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하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점도 분명하다.

대학들은 핵심역량강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이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상황에서 대학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역량수준이 코로나 상황 이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학교육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문제해결(상황)의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양교육과정, 비교과나 전공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화력, 사회적 지원 제공에 관련된 역량연계 교과와 문제해결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과를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약화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목을 확대 개설한다. 신규교과를 개설하거나 기존 교과에서 해당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해당 역량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기존의 해당 역량과 연계된 교과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역량을 교과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체계 내에서 해당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업목표제시, 수업구조마련, 평가체계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 역량 강화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교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원과 시간의 지체없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문제해결역량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S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안을 비교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역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실제 교과에서 프

로젝트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면서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별, 또는 팀별 별도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해볼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협업기반의 문제해결형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대한 변화 결과를 확인하면,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문제해결(상황)의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대학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설정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형태로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조무정, 최선일, 2019), 학년별로 역량의 변화가 있다고 밝히면서 시간과 노력을 전공과 교양을 중심으로 학습할 때 핵심역량이 증가되다가 졸업과 취업을 앞둔 4학년 때는 핵심역량의 증진에 관련된 목표보다는 취업에 힘을 쏟기 때문에 핵심역량은 3학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증진이 있다고 알렸다. 때문에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신입생 및 저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저학년 때 주로 듣게 되는 교양교과를 통해 함양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조무정, 최선일, “대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제13권, 4호, pp. 207-233, 2019년.
- [2] 홍성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 환경에서 대학 교양교과목의 수업성찰”, 교양교육연구, 제14권, 6호, pp. 283-298, 2020년.